06. 근대 예술의 본령, 모던의 도래



l. 모던의 형성

- 1. 19세기 말 유럽
 - 1) 아도르노(Adorno) : 현대적인 것이란 항상 있는 것의 반대인 것
 - 2) 1851년 영국의 만국박람회 개최
 - ① 급격한 기술 진보와 새로운 사물의 등장: 축음기, 전화, 사진, 엑스레이, 자동차, 비행기 등
 - ② 도시의 삶, 자본주의화 된 삶, 익명적인 삶
 - ③ 시간과 공간의 변화
 - 3) 도시에 대한 아키텍처적 야망: 사회적 신체의 통치 개념
 - ① Geremy Bentham Pan Opticon (1791)
 - ② Joseph Paxton Crystal Palace(1851)
 - 3 Howard Gilman Generator (1976)

2. 19세기 예술계

- 1) 예술계의 변화
 - ① 사진의 발명: 그림의 재현, 모방적 기능을 무마시킴
 - ② 새로움에 대한 동경: 전통에 대한 반역, 규범의 파괴
 - ③ 새로움의 미학: 예술은 형, 색, 공간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함
 - ④ 새로운 과격함, 변화를 야기하는 예술의 등장으로 20세기 아방가르드에서 절정
- 3. 예술가들의 위상 변화
 - 1) 권위에서의 해방
 - ① 귀족 및 부르주아 세력과 분리 심화: 시장에서 스스로의 위상에 대해 질문함
 - ② 세속적 화가들과 이단자 그룹으로 양분 : 이단자 그룹은 예술혼, 창작의 욕구를 위해 배고픈 자가 되기를 자처함
 - ③ 칸트: '무목적성으로서의 목적성으로서의 예술'
 - ④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진 예술은 사회 비판적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함

06. 근대 예술의 본령, 모던의 도래



Ⅱ. 인상주의

- 1. 모던 예술
 - 1) 인상주의란?
 - ① 19세기 후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 사조
 - ② 1860년대 파리의 미술가들이 주도함
 - ③ 인상주의라는 이름은 1874년 4월 25일 미술 비평가 르로이가 클로드 모네의 유화 《인상, 해돋이》에 대해 《Le Charivari》지에 기고한 비판에서 처음 쓰임
 - ④ 예술 아카데미의 훈련과 살롱전 데뷔의 전통에 반기를 듬
 - ⑤ 스스로 해석한 현대성의 원칙에 따라 그림
 - 2) 르로이, Le Charivari 기고 비판함

2. 인상주의의 특징

- 1) 실내에서 재현원칙에 따른 원근법, 색채학에 입각한 그림 반대
- 2)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빛의 운동감과 속도감을 그리려 함
- 3) 빛에 따라 변화는 색의 가변성을 포착하려 함
- 4) 미완성, 불완전성, 변화 등의 특징
- 5) 공간을 없애고 가변적 이미지를 남김
- 6) 소재가 파격적
- 7) 특히 자연광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풍경화가 많음
- 8) 공간적 깊이를 상실하여 평면성 강함
- 9) 모던의 지각을 강조하기 위해 속도감을 중시함
- 10) 감정에 상관적인 색감, 질을 강조함
- 11) 속도감의 강조는 점묘법으로 이어짐
 - ① 모네: Impression Sunrise, Olympia, Luncheon on the Grass, Water Lilies (1906), Water Lilies (1919), The Woman in the Green Dress, Le déjeuner sur l'herbe,
 - ② 쇠라: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The Seine and la Grande Jatte,
 - ③ 드가: L'Absinthe, The Collector of Prints, Dancer with a Bouquet of Flowers, The Dance Class, Race Horses in front of the Tribunes, Interior,
 - ④ 고흐: The Starry Night, Sunflowers

06. 근대 예술의 본령, 모던의 도래



III. 세잔과 메를로 퐁티

- 1. 세잔
 - 1) 20세기 근대 회화의 아버지
 - 2) 입체주의와 대상의 객관적 진실표현의 뿌리 제시
 - 26세, 28세에 살롱에 응모했으나 낙방
 - 4) 35세 인상파전 출품으로 데뷔
 - 5) 색과 빛에의 집중과 사물성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한 연구를 엑상 프로방스에서 지속
 - 6) 50세에 첫 개인전을 극찬을 받으며 성공
 - 7) 인상파가 강조하는 빛과 색에 주력하는 동시에 대상이 가진 견고한 사물성에 집중, 화폭에 질서를 부여함
 - 8) 사물은 원통형, 원추형, 구형을 기본형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함
 - 9) 화면에 복수 시점을 줌으로써 일찍이 큐비즘에 영향을 줌
 - 10) 회화의 독자성 살리면서 자연에 지배당하지 않는 회화를 그림
 - 11) Mont Sainte-Victoire (1885~1887), Victoire vue de la carrière Bibémus, Victoire Seen from the Bibemus Quarry, The Basket of Apples, Still Life, Drapery. Pitcher. and Fruit Bowl, Portrait d'Ambroise Vollard

06. 근대 예술의 본령, 모던의 도래



III. 세잔과 메를로 퐁티

- 2. 메를로 퐁티
 - 1) 1908~1961년 프랑스 출신
 - 2) 현상학자
 - 3) 소르본 대학, 콜라주 드 프랑스 교수
 - 4) 사르트르의 〈현대(Les Temps Modernes)〉지 창간에 협력
 - 5) 훗설의 현상학을 발전 시켜 행동의 구조와 지각세계의 연구를 통해 관념론과 실재론의 전제 모두 비판
 - 6) 세잔에 대한 회화론을 남김
 - 7) 주저: [지각의 현상학] (1945),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1968)
 - 8) 메를로 퐁티의 이론
 - ① 원초적 지각
 - 본다는 것은 망막의 현상이 아님
 - 인간이 자신을 외부세계와 물리적 · 정신적으로 관련 맺는 복합적 과정
 - ② 신체적 코기토
 - 지각의 주체는 '사유'가 아니라 혼탁한 '신체'
 - 지각하는 최초의 순간 사물의 모습은 혼란스럽게 나타남
 - 논리적 반성을 통해 정돈하는 것
 - 근원적인 것은 원초적 지각의 세계
 - 신체, 세계는 모두 살(Chair)로 이루어져 있기에 세계의 인식 가능
 - 퐁티는 데카르트가 나눈 신체와 정신을 '살' 속에 녹여 인상주의와 고전주의의 대립을 극복
 - 9) 메를로 퐁티의 세잔론
 - ① 화가란 대부분의 사람이 세계에 묻혀 보지 못하는 광경을 포착하여 보여주는 사람
 - ② '회화적 목표는 단순한 재현이 아닌 세계에 대한 구현'
 - ③ 세계는 매 순간 진행되며 화가는 이 세계의 매 순간을 리얼리티로써 그려야 함
 - ④ 세잔은 사물을 지각에 비친 그대로, 신체의 코기토가 지각한 대로 그리려 했음
 - ⑤ 세간은 풍경의 구조를 탄생하는 유기체로 포착하여 사물 하나하나가 가진 '숭고한 지속'을 구현해 냄